

이번 기자회견은 이제껏 묻혀왔던 교수 성폭력 사건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 대학이 더 이상 성폭력이 묵인되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지를 모아서 성폭력 없는 대학, 나아가서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라색 물결은 말합니다!

99년부터 시행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의해 많은 대학들이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차별·성폭력적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정안(통칭 反성폭력학칙)”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교수, 교직원 사이에 발생하는 성폭력들을 공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칙이지만, 이를 통한 해결과정에 얼마만큼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분명 대학사회를 구성하는 세 가지 축 중 하나이지만, 학생은 ‘교육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학교당국의 인식으로 인해 온전하게 자신의 입장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 특히 교수성폭력 사건의 경우 교수와 학생사이에 존재하는 위계질서로 인해 피해자인 학생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학별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시, 사건에 대해 논의하는 대책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일정 비율 이상의 참여는 명확한 규정으로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대책위원회 구성의원 중 1/3이상의 비율로 그 참여는 보장되어야만 하며, 학생 스스로의 학습권 수호를 위한 권리주장을 학교 당국은 인정해야만 합니다. 학칙을 준비 혹은 완비한 모든 대학들은 실질적인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과 그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쓸 것을 촉구하고, 시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反성폭력학칙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단지 ‘성폭력 범죄’의 치료책으로써 중요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성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기에 그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성폭력 발생의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는 바로 왜곡된 성 인식이 그 기저에 깊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학내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에 서야하는 것은 바로 대학내 구성원들이 ‘反성폭력학칙제정’을 준비하며 혹은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성’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가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기간 잘못되어 왔던 우리들의 언행을 바로잡아 내규를 만들어내고 실천하며 언제 발생될지 모를 ‘성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할 수 것입니다. ‘反성폭력 학칙 제/개정’에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